보도시점 2025. 2. 20.(목) 11:00 < 2.21.(금) 조간 > 배포 2025. 2. 20.(목)

2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 미국 신행정부의 무역·통상 정책 급변에 수출품목별 동향 및 리스크 점검 -
- 박성택 1차관, '25년 2월 수출동향 점검회의 주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20.(목)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25.1월에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0일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10.2% 감소한 491억불을 기록하였으며, 대부분 품목에서도 수출이 감소하였다.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제품가격도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 감소율(△29.3%)을 기록하였다.

* 1월 조입일수 추이 : '24년 24.0일 → '25년 20.0일 (△4.0일)

* 국제 석유제품가격($/b, '24.1→'25.1) : (휘발유)91.2 → 84.5(△7.4%), (경유)102.8 → 95.4(△7.2%)

박성택 1차관은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하면서, "특히,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우려했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2.18일에 발표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노출된 우리 수출기업이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마련하였다"고 강조하면서, "△관세피해 최소화, △무역금융 확대, △대체시장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출 비상시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거기에 맞추어 필요한 업종별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무역투자실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여수항	(044-203-404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